

# The Working Lives and Struggles of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in California

## Korean Americans

### About the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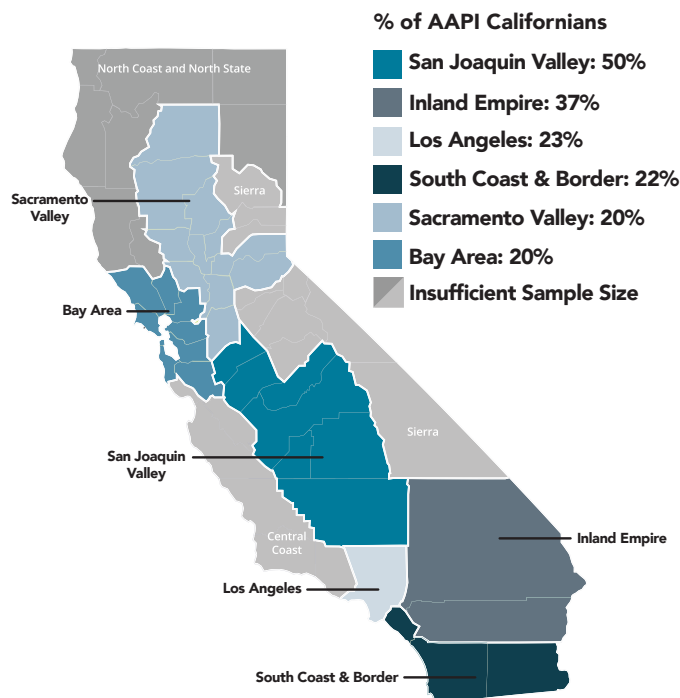
In November 2019, researchers from PRRI and AAPI Data released a landmark report o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 workers in California. The survey of 2,684 AAPI California residents explored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workers, many of whom are struggling with poverty.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are the fastest-growing racial groups (and working-age population) in California and the nation. Between 2010 and 2017, most new immigrants (56%) to California came from A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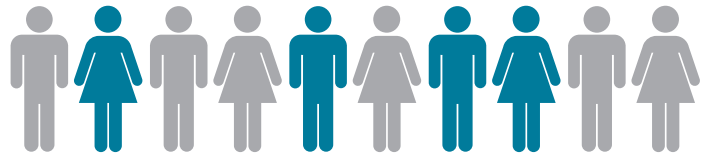
As with other racial and ethnic groups, the research tells the story of “two Californias” — one where some AAPI workers are financially stable and another in which AAPI workers report struggle significantly. This brief highlights key findings relevant to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from the full report.

### AAPI California Workers Struggling with Poverty Within Each Region

In California, the highest proportion of Korean American adults reside in Los Angeles (46%) and the Bay Area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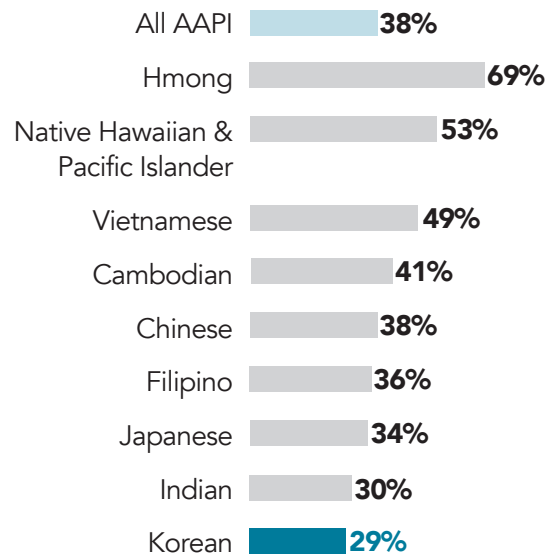


###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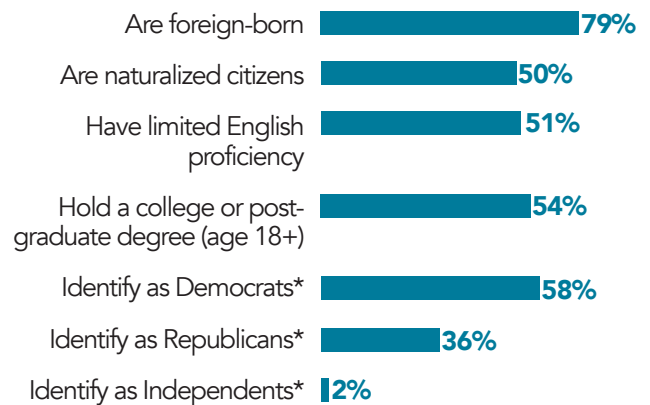
Nearly **FOUR IN 10** AAPI workers in California are struggling with poverty.

### AAPI Workers Struggling with Poverty



### Snapshot of Korean Americans in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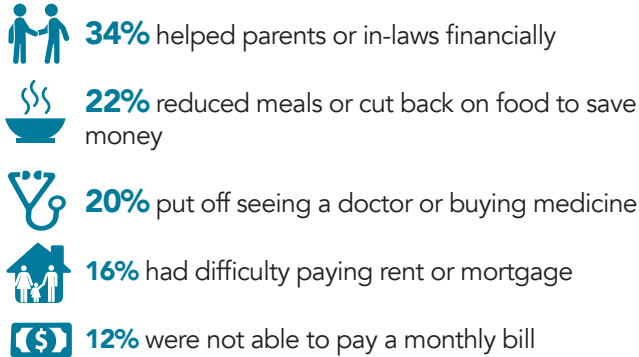
From the Census Bureau's American Community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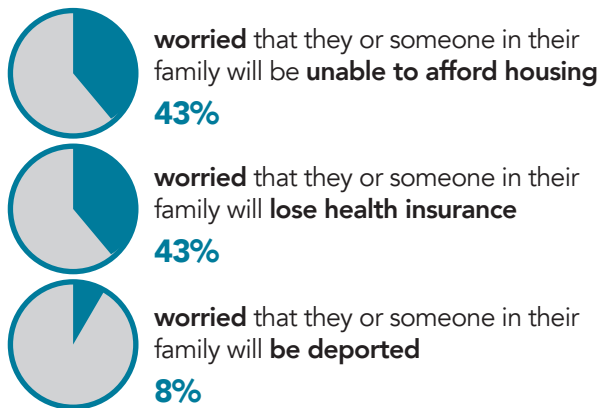
\*From the PRRI/AAPI survey

## Economic Hardships and Concerns

Share of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who experienced hardships in the past 12 months:



Share of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who are:



## Views on the American Dream and Economic Mobility Among Korean Americans in California

**65%** still believe in the American Dream (if you work hard, you'll get ahead), compared to 62% of all AAPI Californians.

**56%** of struggling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believe in the American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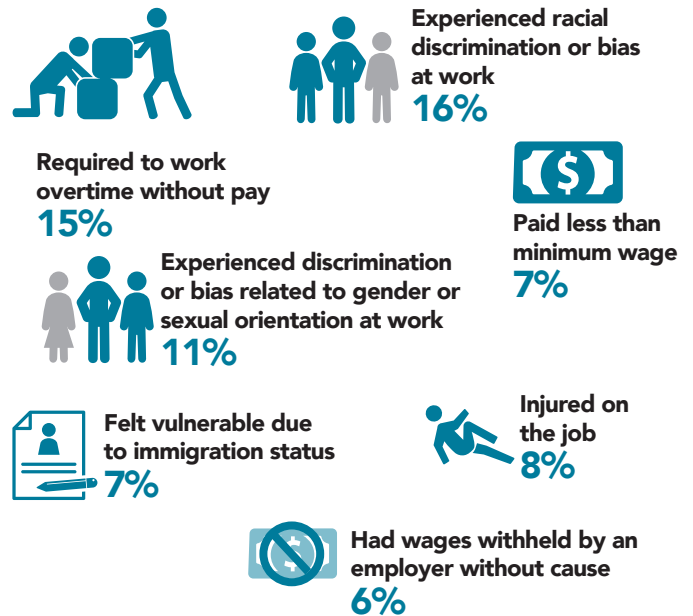
**32%** believe it is harder to achieve the American Dream here than in other states.

**35%** would encourage young people to leave their community for better opportunities.

**53%** agree that hard work is not a guarantee of success, compared to 55% of all AAPI Californians.

## Hardships on the Job

Share of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who said they or someone in their household experienced the following in the past 12 months:



## Views on the Economy, Employers, and Policymakers

Share of Korean American workers in California believe that:

The U.S. economy unfairly favors the wealthy **72%**

Public officials do not care what they think **76%**

Employers generally see them as replaceable **65%**

It is important to organize so that employers do not take advantage of them **71%**

For more data and survey methodology, please see the full report, in English, at: [irvine.org/learning/aapi](http://irvine.org/learning/aapi)

# 가주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AAPI) 근로자의 삶과 어려움

## 한국계 미국인

### 조사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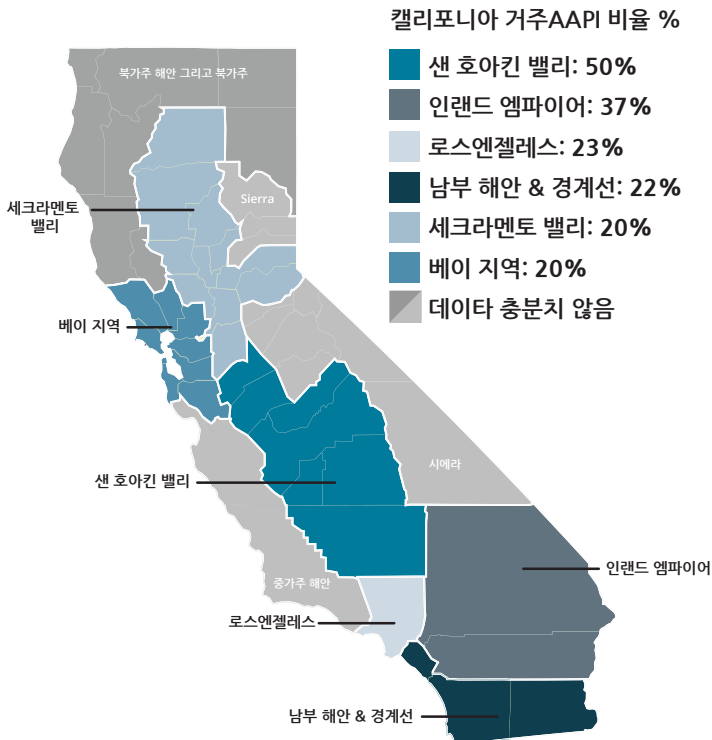
2019년 11월에 PRRI (공공종교연구소)와 AAPI 데이터는 가주 아시안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AAPI)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한 2,684명 가주 AAPI 주민들의 빈곤에 시달리는 근로자로서의 경험과 의견을 탐구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AAPI)는 가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인종 그룹 (그리고 노동 연령 인구) 입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온 대부분의 새로운 이민자들(56%)은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다른 인종과 민족들에서 본 결과와 같이, 이 연구 결과는 "서로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 이야기를 다룹니다. — 하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AAPI 근로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AAPI 근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근로자들의 현실에 관련된 상세 보고서의 중요한 발견 결과를 여기 요점 정리합니다.

### 각 지역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AAPI 근로자들

가주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 성인이 사는 곳은 로스엔젤레스(46%)와 베이 지역(16%)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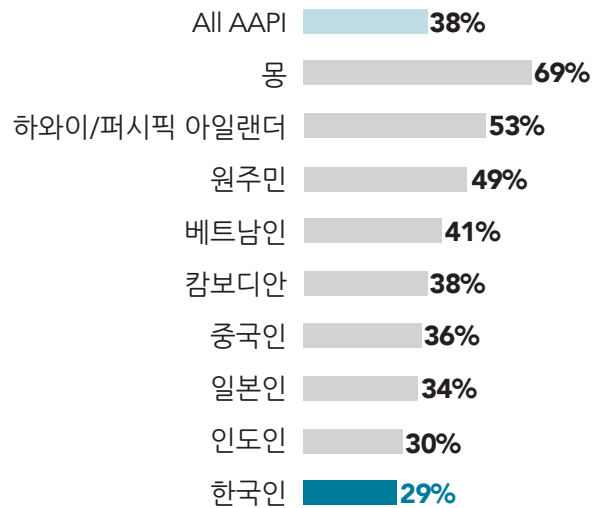


### 중요 결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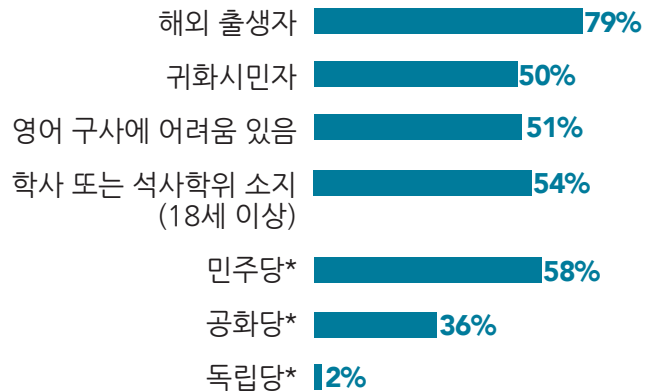
10명 중 거의 4명의 캘리포니아 AAPI 근로자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각 지역에서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AAPI 근로자들



### 한국계 캘리포니아 주민에 관한 중요 요점






인구 조사국의 미국 사회 조사에 의하면






\* (PRRI/AAPI 설문조사 근거)

## 경제적 어려움과 고충

지난 12개월간 어려움을 겪은 거주 한국계 미국인 근로자들의 비율

-  **34%**는 부모 또는 친인척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음
-  **22%**가 돈을 아끼기 위해 음식 또는 먹거리를 줄임
-  **20%**가 의사를 방문하거나 의약품을 사는 것을 미룸
-  **16%**가 렌트비 또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는데 어려움 겪음
-  **12%**는 월간 고지서를 지불하지 못함

아래와 같은 처지가 될까 걱정하는 거주 한국계 미국인들의 비율








-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주택을 유지할 수 없게 됨을 걱정 **43%**
-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건강보험을 잃어버리게 됨을 걱정 **43%**
-  자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추방당하게 됨을 걱정 **8%**

## 가주의 한국계 미국인 사이의 아메리칸 드림과 경제적 유동성에 대한 인식

- 65%**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믿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가주의 모든 AAPI의 62%와 비교.
- 56%**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근로자들의 56%가 아메리칸 드림을 믿음.
- 32%**의 사람들이 다른 주 보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믿음.
- 35%**의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커뮤니티를 떠나서 더 좋은 기회를 갖기를 장려함.
- 53%**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믿음. 55%의 모든 AAPI 거주민들과 비교.

## 직장에서의 어려움

지난 12개월 동안 아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 또는 가족이 있다고 답변한 거주 한국계 미국인 근로자 비율

-  **15%**가 무보수 오버 타임 근무를 강요 받음
-  **16%**가 인종 차별 또는 편견 경험
-  **7%**가 최저 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음
-  **11%**가 직장에서 성 또는 성적 경향과 관련해서 차별 또는 편견을 경험
-  **7%**가 이민 신분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낌
-  **8%**가 직장에서 상해를 당함
-  **6%**가 고용주에 의해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을 원천 징수 당함

## 경제, 고용주, 정치인들에 대한 인식

한국계 미국인 캘리포니아의 근로자들이 다음의 사실들에 대해 믿고 있는 비율

- 72%**는 미국 경제가 부자들에게 불공평하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믿고 있음
- 76%**는 공무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믿음
- 65%**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교체 가능한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믿음
- 71%**는 근로자들이 힘을 합쳐 고용주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음

더 많은 데이터와 조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원하시면 영어로 된 최종 보고서를 [irvine.org/learning/aapi](http://irvine.org/learning/aapi) 에서 볼 수 있습니다